

# 식민지시대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과 그 의미

- 식민지시대 김옥균의 극적 재현방식을 중심으로 -

이상우\*

## || 차례 ||

- I. 김옥균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 II. 아시아주의자의 전유 : 민태원, 김진구, 고균희
- III. 민족주의, 혹은 대중 미디어의 전유  
: 유성기 음반, 나운규, 김기진
- IV. 군국주의의 전유와 내적 균열 : 조용만과 박영호
- V.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문화텍스트에서 역사 인물의 재현은 한마디로 기억담론 투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문화텍스트들에는 역사 인물에 대한 서술 주체의 각기 다른 기억 욕망이 존재하며, 그 문화텍스트를 담는 미디어/정치/자본의 기억 욕망, 당대 정치권력의 기억 욕망, 그리고 대중들의 기억 욕망 등이 서로 욕망의 경합(contest)을 벌여서 특정한 기억이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시대 문화텍스트에 나타난 김옥균에 대한 기억 욕망과 재현방식들을 아시아주의의 전유, 민족주의 및 대중 미디어의 전유, 군국주의의 전유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규명해보았다.

첫째, 아시아주의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 이는 일본의 현안사, 흑룡회 계열 아시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아시아주의자에 의한 김옥균의 추앙 및 재현 양상을 의미한다. 『김옥균 전기』를 쓴 민태원, 김옥균에 관한 야담과 희곡 <대무대의 붕괴>를 쓴 김진구가 그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이들의 재현 행위에는 김옥균에 대한 추앙, 영웅화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균희’라는 김옥균 추앙단체를 만든 것이 그

---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단적인 증거다. 이들의 김옥균 재현 욕망에는 김옥균에 대한 개인적 숭배가 깊이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숭배, 추앙 행위는 민족주의적 욕망으로 비쳐질 수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국 일본으로의 편입 욕망을 김옥균이라는 매개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 혹은 대중 미디어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 1930년대 신문, 잡지, 유성기 음반, 영화, 대중극 등 대중 미디어에서 김옥균은 빈번하게 재현되었다. 여기에는 혁명과 좌절, 망명과 암살이라는 김옥균 서사가 본질적으로 극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데다가 실패한 개혁과 혁명이 망국을 불러왔다는 안타까움과 설움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민족 서사로서 기능할 여지가 충분했다.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기진의 소설 <청년 김옥균>, 나운규의 영화 <개화당이문>, 유성기 음반 <김옥균전>, 극단 아랑의 연극 <김옥균>, 청춘좌의 연극 <김옥균전> 등이 그러한 것이다. 1930년대의 김옥균 서사는 단순한 이념 지향의 재현 욕망에서 벗어나 대중적 소비를 위한 재현 욕망으로 전화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시기 김옥균 서사의 유통, 소비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재현 욕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미디어 자본의 상업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 변별성이 있다.

셋째, 군국주의의 전유. 일제 말기가 되면 김옥균은 군국주의에 의해 재소환 된다. 그가 주창한 삼화주의는 대동아공영권 담론과 반서양주의라는 군국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국주의에 의한 김옥균의 재전유에 의해 김옥균은 대동아공영권 이념과 내선일체의 선구적 사상가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재전유에는 역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김옥균을 대동아공영권 담론에 포획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본의 배신과 불신에 의한 혁명의 좌절이라는 내적 균열이 강조되게 된다. 조용만의 소설 <배 안에서>와 박영호의 희곡 <김옥균의 사>에는 모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들의 김옥균 재현 욕망의 근저에 제국 일본에의 통합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식민지 지식인이 갖는 제국적 주체로의 욕망은 내적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내적 분열에 의해 이들의 작품에는 식민주의에 대한 내파가 드러난다.

주제어 : 김옥균, 기억의 정치학, 재현, 전유, 아시아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 대중 미디어

## I. 김옥균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은 한국 최초의 근대 개혁운동으로 평가되는 갑신정변(1884)의 주역으로서 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894년 상하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당한 ‘비운의 혁명가’이다. 그의 시신은 조선으로 이송되어 한강 양화진에서 ‘모반대역(謀叛大逆)부도죄인(不道罪人)’이라는 이름으로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그의 사망 직후 조선에서는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1895년 김홍집 내각에 의해 반역죄가 사면되었고,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7월에 홍영식, 어윤중과 함께 정일품(正一品)을 하사받으면서 정식 복권되었고<sup>1)</sup>, 충달공(忠達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sup>2)</sup>

김옥균은 독립과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변을 일으켰기에 근대 개혁운동의 혁명가로 기억되는가 하면, 일본의 힘을 빌려 정변을 꾀하였고 실패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기에 대역죄인(大逆罪人), 혹은 친일파의 원조로 기억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김옥균은 후대의 문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는가. 먼저, 주목할 만한 초기 문헌은 이인직(李人植)의 신소설 <은세계>(1908)의 한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병도는 강릉 바닥에서 제사로 유명한 사람이라. 갑신년 변란 나던 해에 나이 스물두 살이 되었는데 그 해 봄에 서울로 올라가서 개화당의 유명한 김옥균을 찾아보니, 본래 김옥균은 어떠한 사람을 보든지 옛날 육국 시절에 신릉군이 손 대접하듯이 너그러운 풍도가 있는 사람이라. 최병도가 김씨를 보고 심복이 되어서 김씨를 대단히 사모하는 모양이 있거늘, 김씨가 또한 최병도를 사랑하고 기이하게 여겨서 천하 형세도 말한 일이 있고, 우리나라 정치 득실도 말한 일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를 개혁할 경륜은 최병도에게 말하지 아니하

1) 『三氏贈職』, 『황성신문』, 1910.7.5.

2) 『四氏贈諡』, 『황성신문』, 1910.7.6., 『이것도 무마 수단인가』, 『신한민보』, 1910.8.10.

있더라. 갑신년 시월에 변란이 나고 김씨가 일본으로 도망한 후에 최씨가 시골로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그 경영인즉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 부인과 옥순이를 데리고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여 지식이 넉넉한 후에 우리나라를 붙들고 백성을 건지려는 경륜이라.<sup>3)</sup> (밑줄, 인용자)

구한말 부패관료인 원주 감사에 맞서 저항하다가 매 맞아 죽는 강릉의 평민 부호 최병도는 개화당 김옥균의 추종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김옥균의 개화, 개혁사상에 감화를 받아 스스로 문명국가에 유학을 하여 선진 지식을 습득한 뒤 귀국해 나라를 개혁할 포부를 갖고 있다. <은세계>에서 김옥균은 문명개화와 근대개혁운동의 선구자로 묘사되고 있다.

한편, 1910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기록에는 이와 상반된 기억도 존재한다. 정교(鄭喬)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sup>4)</sup>에는 김옥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83년 여름 4월

○ 김옥균을 포경사(捕鯨使)로 임명하다.

동남 연해 등 지역에 가서 고래잡이에 관한 일을 다스렸는데, 김옥균은 울릉도(鬱陵島)의 삼립을 일본인에게 몰래 팔아먹었다.<sup>5)</sup>

1884년 겨울 10월

○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대군주(大君主)를 위협하여

3) 이인직, <은세계>, 『한국신소설선집(2)』(권영민 외 편), 서울대출판부, 2003. p.38.

4) 『대한계년사』는 정교가 1894년 궁내부 주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된 관료생활에서 습득한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쓴 7권8책의 방대한 필사본이며, 현재 이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사학계에서는 1913년 이후에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교, 『대한계년사(1)』(조광 편, 이철성 역주), 소명출판, 2004. pp.20-24]

5) 정교, 『대한계년사(1)』(조광 편, 이철성 역주), 소명출판, 2004. p.94.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거짓 조서로 일본 공사를 불러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 지키게 하다.**

이에 앞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을 두루 돌아본 다음, 우리나라를 깔보고 인륜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재물을 물 쓰듯 하면서 일별이기를 좋아했고, 사치가 지나쳐 분수를 넘었다. 임금(고종)은 그들이 알팍한 재주와 말솜씨를 지니고 외국의 사정을 약간이나마 안다 하여, 높은 벼슬을 주어 아끼고 두터운 신의로 대우했다.<sup>6)</sup> (밑줄, 인용자)

정교의 『대한계년사』에 나타난 “김옥균은 울릉도의 삼림을 일본인에게 몰래 팔아먹었다.”든가, “일본을 두루 돌아본 다음, 우리나라를 깔보고 인륜을 업신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김옥균의 개인적 탐욕과 경박, 경솔함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국토를 일본인에게 팔아먹은 ‘김옥균=매국노(賣國奴)’라는 암유가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다. 즉, 정교는 객관적 서술태도를 취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을 친일적 인물로 재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인직은 <은세계>를 쓸 무렵 친일 신문사인 『대한신문(大韓新聞)』의 사장을 맡았고 이완용의 측근 인사였던 데 비해, 정교는 『대한계년사』 집필 전에 독립협회, 대한자강회, 대동학회 등 민족자강운동 그룹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던 경력을 갖고 있었던 점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서로 다른 개인적 이력이 김옥균에 대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게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문헌 기록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서술까지 포함하자면 김옥균에 관한 문헌 기록은 그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심의 초점을 김옥균에 관한 기억을 재현시킨 문화텍스트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텍스트도 매우 다양하다. 흥미롭게도 김옥균에 관한 문학적 재현은 1880~90

6) 위의 책, p.114.

년대에 이미 일본에서 먼저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만 국한해 보면, 1920년대 김진구의 희곡 <대무대의 붕괴>(1929)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에는 나운규의 영화 <개화당이문(開化黨異聞)>(1932), 김기진의 장편소설 <청년 김옥균>(1934), 유성기 음반 <김옥균전>, 1940년대에는 극단 아랑의 연극 <김옥균>(임선규, 송영 작, 1940), 조용만의 일본어 단편소설 <배 안에서(船の中)>(1942)와, 박영호의 희곡 <김옥균의 사>(1944) 등이 주목되는 작품들로 꼽힌다. 물론 해방 이후에도 오영진의 희곡 <동천홍>(1973), 신상옥의 영화 <삼일천하>(1973), 오태석의 희곡 <도라지>(1994) 등 김옥균을 재현하는 문화텍스트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를 재현한 텍스트(역사극, 역사소설 등)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억 담론투쟁 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극이나 역사소설은 이인직과 정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정치학(the politics of memory)이라는 형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극, 역사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담론투쟁 장에는 기억하는 개인 주체와 그 시대의 대중적 욕망, 그리고 그 기억 욕망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권력관계를 비롯한 기억담론의 미시정치학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연극, 영화, 소설, 유성기 음반 등 문화텍스트에서 김옥균이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기억 욕망과 연관되어있는지, 그리고 재현의 욕망과 기억의 정치학은 어떻게 교섭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시대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은 대체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첫째, 아시아주의자들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appropriation). 이는 갑신정변 직후 김옥균과 동지적 관계를 맺었던 도야마 미즈루(頭山

7) 이러한 분류는 김태웅의 논문 「일제 강점기 김옥균 추앙과 위인교육」(『역사교육』 74집, 2000)을 참조.

滿), 오오이 켄타로(大井憲太郎)로 대표되는 현양사(玄洋社), 흑룡회(黑龍會) 계열의 일본 아시아주의 지식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국 지식인에 의한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을 일컫는다. 1920~30년대 민태원, 김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민족주의 지식인, 그리고 대중 미디어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 이는 1920년대 『개벽』, 『동아일보』가 주축이 된 김옥균 추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930년대 김기진의 소설, 나운규의 영화, 유성기 음반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김옥균 추앙은 일종의 민족주의운동의 성격을 가지면서 신문, 영화, 레코드 음반 등 대중 미디어를 통한 김옥균 서사의 대중적 소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동아공영권 담론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 1940년대에 김옥균의 삼화주의(三和主義)사상을 동양주의 담론에 포섭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김옥균의 재전유가 나타난다. 조용만의 소설, 박영호의 희곡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계열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에 나타난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 양상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아시아주의자의 전유 : 민태원, 김진구, 고균희

민태원의 『김옥균 전기』에 따르면, 김옥균은 이미 1881년부터 도일(渡日)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일본을 드나들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일본 조야의 거물들을 만나 한국 개혁의 대책과 동양 정세의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8)</sup> 또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일본에 망명해서 도야마 미츠루(頭山滿), 미야자키 토오텐(宮崎稻天), 후쿠자와 유키치 등의 비호를 받았다. 특히 김옥균과 도야마 미츠루와의 관계는 각별했다.

8) 민태원, 『김옥균전기』, 을유문고, 1969. pp.61-64.

동양 정세에 대한 입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하는 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아미는 동양연대론, 아시아주의를 표방한 결사체인 현양사(玄洋社)의 대표적 정객이었기에 한중일 삼국의 협력을 통해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자는 삼화주의(三和主義)를 주장한 김옥균과 이념적 입장에서 일치할 수 있었다. 또 김옥균은 주변국에서 들어온 일본의 첫 번째 망명객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 그는 커다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그가 1894년 상하이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하자 그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의 소설 <胡砂吹<風>은 1891년 『東京朝日新聞』에 연재된 소설로서 갑신정변을 연상시키는 조선의 개혁운동에 관한 작품이었다. 김옥균이 암살당한 뒤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자 속편 <續胡砂吹<風>(1895.1.-1896.4)이 다시 같은 신문에 연재되었다.<sup>9)</sup> 김옥균에 관한 재현은 조루리(淨瑠璃), 희곡 등 공연예술 장르에까지 확산되었다. 다자와 이나부네(田澤稻舟)가 쓴 조루리 <焔殘形見姿會>(1895),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의 희곡 <金玉均의死>(1920),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의 희곡 <金玉均>(1926)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김옥균 소재 작품들이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것, 즉 김옥균 이야기가 독자, 또는 관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얻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현양사, 흑룡회 계열의 아시아주의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본래 일본 메이지시대에 자유민권운동파로 시작된 현양사는 1887년(메이지20년) 경에 들어서면 민권(民權)론을 버리고 국권(國權)론의 방향으로 전향하기 시작하여 점차 아시아 연대론을 기반으로 한 대륙침략주의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민권운동파 시절의 아시아 연대론이 점차 수그러들고 대륙침략

9) 박제홍·김순전, 『일제 말 문학작품에 서사된 김옥균상』, 『일본어교육』 제40집, 2009. p.176.



론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주의가 현양사의 지도이념이 된다. 현양사를 계승하는 흑룡회(黑龍會, 1900)는 여기서 더 나아가 만주, 몽골의 탈취를 기도하여 일본의 생명선(生命線)을 확보하자는 대아시아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sup>10)</sup> 즉, 일본인에게 현양사=흑룡회의 아시아주의사상은 일본의 대외 발전, 해외 웅비(雄飛)의 사상으로 비쳐졌던 것이었기에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일본 내에서 김옥균 서사는 일본의 영향력을 조선, 더 나아가 중국, 만주, 몽골로 확장해나가는 해외 웅비 사상을 반영하는 표상으로서 읽혀졌던 것이다. 근대에 들어 일본으로 처음 유입된 해외 망명객 1호 김옥균에 대한 일본 내의 호기심이 컸던 것은 확장하는 제국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에서 189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이어지는 김옥균의 재현양상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의 희곡 <金玉均의 死>(1920)와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의 희곡 <金玉均>(1926)이다. 특히 아키타의 희곡은 조선에서 번역, 게재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아키타의 희곡은 <김옥균의 죽음>이라는 제명으로 1920년 7월에 白岳 김환이 번역하여 『창조』에 게재되었다. 일본에서 1920년 1월 잡지 『人間』에 발표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신속하게 조선에서 번역, 소개되었다는 점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상하이로 배경으로 김옥균의 최후 순간을 그린 이 희곡은 발표 시점이나 소재, 내용을 볼 때 매우 독특하다. 일본인 극작가가 조선의 역사인물 김옥균의 최후 순간을 구체적으로 극화한 사실적 희곡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더욱이 아키타는 일본의 유명한 신극운동가 이기에 그가 왜 김옥균을 극화했으며,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는 점에 궁금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은 오사나이 가오루의 <김옥균>도

10)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백지운 역,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 pp.234-235.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키타의 번역희곡 <김옥균의 죽음>은 이광수의 <규한>(1917), 윤백남의 <국경>(1919), 최승만의 <황혼>(1919) 등 한국 근대 초창기 희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면 발표 희곡이라는 점에서 희곡사적인 의미가 크다. 이는 1920년 무렵 조선에서 김옥균 추앙운동이 일기 시작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개벽』지는 김옥균을 ‘조선의 10대 위인’으로 선정하고 『忠達公 김옥균 선생』(1920.8.25), 『忠達公 實記의 거둠』(1920.9.25) 등 연달아 김옥균 관련 기사를 실어 김옥균 등 개화파 위인의 추앙 분위기를 북돋웠다. 『개벽』지는 김옥균을 일러 “조선 근대의 最大 產物”, “세계적 위인”이라고 추켜세웠다.<sup>11)</sup> 이러한 김옥균 추앙 정서는 3.1운동 직후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키타의 희곡이 신속하게 조선에 번역된 것도 이러한 시기의 김옥균 추앙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키타의 <김옥균의 죽음>은 단막극으로서 주요 등장인물은 김옥균, 홍종우, 오다(太田延次郎)<sup>12)</sup>에 불과하다. 1894년 상하이의 어느 여관방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는 김옥균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특히 혁명에 실패한 풍운아 김옥균의 최후를 평범한 범부(凡夫)의 모습으로 묘사한 점이 특이하다. 혁명에의 열정은 사라지고, 절망과 체념, 우울함에 사로잡힌 범부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가길 희망하고, 술과 기생에 탐닉하는 김옥균의 모습에 대해 홍종우와 오다는 모두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옥균은 오랜 망명생활과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상하이행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혁명이 걸으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사욕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치에 대한 냉소

11) 『忠達公 김옥균 선생』, 『개벽』, 1920.8. p.41.

12) 김옥균이 상하이로 갈 때 수행하였던 실제 인물인데, 실명은 와다(和田延次郎)이다.

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아키타의 희곡은 김옥균을 영웅화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키타는 이 작품에서 조선의 혁명가 김옥균의 쓸쓸한 말로(末路)를 통해 정치적 영웅이란 없으며 범부와 같은 인간 김옥균의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정치 허무주의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키타 우자쿠가 일본 신극운동계의 극작가이며, 1920~30년대에는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에도 관여한 진보적 성향의 연극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sup>13)</sup>, 도야마 미즈루 류의 아시아주의에 현혹되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아키타는 이후에 <아이누족의 멸망(アイヌ族の滅亡)>(1925)이라는 작품을 썼을 만큼 약소 민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이기 때문이다.<sup>14)</sup> 그렇게 볼 때, 아키타의 김옥균에 대한 극적 재현의 욕망에는 일본에 망명한 동아시아 정객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정치적 허무주의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에 비하면 1920년대 후반에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에 철저하게 몰두했던 김진구의 경우는 한국인이지만 아키타에 비해 훨씬 더 일본 아시아주의 사상을 내면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유학했던 김진구는 일본에서 도야마 미즈루를 비롯한 현양사, 흑룡회 계열의 우익 인사들과 교류하였는데, 도야마는 그에게 김옥균을 “동양정국의 제1인자”이며 동서고금을 통해 탁월한 인격자라고 찬양하였다.<sup>15)</sup> 김진구의 김옥균 연구는 도야마 미즈루, 미야자키 토오텐 등 현양사, 흑룡회 계열의 일본 낭인(浪人)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sup>16)</sup> 이때부터

13) 스카이 유키오, 서연호·박영산 역, 『근대일본연극논쟁사』, 연극과 인간, 2003. pp.144-147.

14) 大笹吉雄, 『日本現代演劇史(大正,昭和初期篇)』, 白水社, 1986. p.373.

15) 김진구, 「김옥균 선생의 뱃노리」, 『별건곤』, 1926.11. p.104.

16)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진구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 제13호, 2003. pp.81-82.

그는 김옥균에 관한 책을 집필할 목적으로 “九州, 關西, 東北, 北海島, 小笠原島까지 일본 전국을 골고루 遍踏하면서 材料蒐集에” 몰두하였는데<sup>17)</sup>, 민태원이 김옥균 전기를 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필을 포기하고 수집한 자료를 민태원에게 제공하였다.

민태원은 김진구, 김철호 등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1926년에 『김옥균 전기』를 출간하였다. 『김옥균 전기』에서 민태원 자신의 아시아주의사상에 대한 경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 그는 민족 선각자로서의 김옥균 이미지 만들기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적인 대목은 부록에 실린 가다(賀田直治)의 『韓國維新의 선각자 김옥균』이라는 글이다. 여기에 이러한 대목이 있다.

김옥균의 표창에 관해서는 1916년 5월에 토야마(頭山滿), 이누가이(犬養毅), 도모후쿠(朝吹英二) 등 세 사람과 그밖의 김옥균의 친구들이 서명해서 오쿠마(大隈) 내각총리 대신과 테라우치(寺內) 조선 총독에 건의하고 이듬해 1월 귀족원과 중의원에 건의했는데 그 표창문은 다음과 같다. (……) 일본제국은 유신이라는 큰일을 완성하고 나라의 빛이 중외(中外)에 선양되고 타이완(臺灣)을 점령, 사할린(樺太)을 회복, 다시 한국을 합병하는 국운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모두 청일(淸日), 노일(露日)전쟁의 결과에 힘입은 것이 많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대승리는 노일전쟁의 전초전으로서 확신한다. 전자 없이 후자의 승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온 나라가 힘을 합하여 적을 무찌를 정신을 고무하여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동양 평화의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얻은 것은 김옥균의 비참한 학살의 피가 드디어 도화선이 되었던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sup>18)</sup>

김민정, 「김진구 야담의 형성배경과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2009.12. pp.8-9.

17) 김진구, 『印象 김혼 鷄林莊, 굴머본 이야기』, 『별건곤』, 1930.7. p.33.

18) 민태원, 『김옥균전기』, 을유문고, 1969. p.137.

이 대목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만, 사할린, 조선을 합병한 오늘날 일본제국의 영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 때문이고, 청일전쟁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김옥균 암살사건이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민태원이 부록이라는 지면을 통해 소개의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다른 이의 입을 빌어 결국 ‘김옥균 → 청일전쟁 → 러일전쟁 → 한일 합병 → 현재의 일본제국’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과거, 혹은 족보를 요구한다. 1920~30년대 일본에서도 이른바 근대성의 족보(pedigree of modernity)가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근대적 서사의 구성으로서 1868년 이후에 일본이 수행한 근대 전쟁이 일본의 근대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해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성의 족보를 통해 국민의 공식적 기억을 창안하고 일본 국민 만들기(nation building)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바 김옥균 서사는 이러한 제국 일본의 근대성 족보에서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의미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19)</sup> 민태원이 일본 우익의 아시아주의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는 것이다.

김옥균 전기 간행사업의 몫을 민태원에게 양보한 김진구는 김옥균 추앙 운동을 야담(野談) 분야에서 전개하여 여러 편의 김옥균 관련 야담을 창작하는 한편 시대극(時代劇)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28년 조선시대극연구회(朝鮮時代劇研究會)를 창립하고 희곡 <대무대의 붕괴>(『학생』, 1929.5)를 직접 써서 공연하였다. 물론 김진구의 시대극운동은 연극운동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야담운동의 대중화 방안으로서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대무대의 붕괴>는 연극성이 매우 취약하고 김옥균의 위인 만들기에

19) Wilson, Sandra, "The Past in the Present", *Being Modern in Japa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p.170-171.

치중한 작품이다. 김옥균 자신은 물론 그의 동지들, 그리고 김옥균(狂)이라는 가공인물까지 김옥균의 위인됨을 치켜세우는데 열중한다. 김옥균狂이라는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김옥균 숭배 인물의 설정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며, 인물의 대사에 장광설이나 불필요한 휴지가 많다는 점 등은 극작술의 결핍을 알게 해준다.<sup>20)</sup> 극작술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야담 공연의 대성공에 고무된 김진구는 연극을 통한 위인 교육,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대중계몽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무대의 붕괴>의 연극적 성취보다는 그것을 통해 그가 대중에게 계몽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김 : 내가 무슨?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그런 가혹한 인격자이겠니미는 동양 대세로 보아서 중국을 얼른 깨우쳐 놓아야 하지……일본이 지금 상하 일치해서 조금 눈을 뜬 셈이나 그까짓 손바닥만한 일본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 동양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청국의 흥망에 좌우되는 것이다. 조선 문제도, 안남 문제도, 또한 인도 문제까지라도 이 근본 문제로부터 해야 해결될 것이다.

화 : 그 말씀을 하시니 말이지요, 일본에 있을 때 저는 외국사람 중에서도 영국 사람이 제일 미워 못 견디겠어요.

김 : 그건 무엇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던고?

화 : 저 — 횡빈을 갈 적마다 눈 꼬리 틀리는 꼴을 봤지요. 영국 사람의 앞에서는 일본 관리들이 벌벌 떠는 꼴요. 그리고요 제일 분한 것은 일본 경관이 도적을 추적하다가도 그 도적놈이 영국 놈의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닭 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으로 그만 꿈쩍도 못합니다 그려. 그것을 보고서 정말 어찌나 의분이 일어나는지 (주먹을 쥐면서) 이 조그만 주먹이지만 그놈의 서양 놈들을 죄다 두드려 쫓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김 : 흠, 너는 옳은 피와 용맹스런 담이 꼭 찬 정말 동양남아로구나.<sup>21)</sup> (밑줄,

20) 가령, 和田의 한 대사 안에는 30초, 20초간의 긴 침묵이 두 번씩 들어있기도 하다.

## 인용자)

상하이의 여관에서 김옥균과 와다(和田)가 주고받는 이 대화 장면에서 김옥균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온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실권자 이홍장을 만나 중국과 일본, 조선의 협력을 통해 서양에 맞서는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김옥균의 삼화주의(三和主義)사상의 단면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되는 점은 김진구에 의해 재현된 김옥균의 삼화주의라는 것이 삼국협력에 의해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서양(영국)에 무력으로 공세를 취하는 인종주의적 침략주의 사상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와다의 인종주의, 반(反)서양주의 발언에 대해 김옥균이 “동양남아(東洋男兒)”다운 기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김진구의 이러한 김옥균 전유는 도야마 미츠루와 같은 일본 아시아주의자들로부터 받은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김옥균 선생의 뱃노리』(『별건곤』, 1926.11), 『김옥균 선생의 죽든 날, 3월28일의 상해 부두』(『별건곤』, 1927.3), 『김옥균 선생의 삼일천하가 성공했다면』(『별건곤』, 1927.7), 『김옥균과 박영호』(『삼천리』, 1931.5), 『이규완의 김옥균, 박영호 평』(『삼천리』, 1931.12) 등 김옥균 추앙을 위한 다수의 글 썼을 뿐만 아니라 1934년 3월 김옥균 타계 4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김옥균을 기념하는 ‘고균회(古筠會)’<sup>22)</sup>를 설립했을 만큼 김옥균에 대한 집요한 숭배를 보여주었는데, 이러

21) 김진구, <대무대의 붕괴>(1929), 『한국의 현대회곡(1)』(서연호 편), 열음사, 1989. p.207.

22) 고균회는 1934년 3월 17일 도쿄시 풍도구 고전본정에서 설립되었고, 고균회관 건립, 40주년 기념출판, 기념강연, 야담회 개최 등을 사업내용으로 삼고 있다. 김진구가 회장을 맡았다. (『金玉均氏 遭難 40年 記念』, 『동아일보』, 1934.3.24.)

한 행동의 표면은 민족주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국 일본으로의 편입 욕망의 점점 김옥균이라는 지점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현양사, 흑룡회 계열의 일본 아시아주의자들과의 직접적 교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逆)으로 김옥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그는 1936년에 출판된 『國癩切開』라는 책에서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을 반죽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선구적인 내선일체주의자였다.<sup>23)</sup> 김진구의 김옥균 재현, 전유 욕망은 민족주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식민지인이 제국 주체로 편입되기 위한 입장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 Ⅲ. 민족주의, 혹은 대중 미디어의 전유 : 유성기 음반, 나운규, 김기진

1930년대에 들어서 김옥균은 민족주의자들과 대중 미디어의 재현 욕망에 의해 다시 전유된다. 나운규의 영화 <개화당이문(開化黨異聞)>(1932)과 김기진의 소설 <청년 김옥균>(1934), 유성기 음반 <김옥균전>, 극단 아랑의 연극 <김옥균>(임선규, 송영 작, 1940), 청춘좌의 연극 <김옥균전>(김건 작, 1940)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 김옥균의 재현 욕망은 이전과 다른 복잡한 국면을 맞게 된다. 즉, 김옥균 서사가 단순한 이념지향의 재현 욕망에서 벗어나 대중적 소비를 위한 재현 욕망으로 전화한다는 것이다. 김옥균 이야기의 유통, 소비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욕망에서 발원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대중적으로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미디어의 상업적 욕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에 들어 영화, 라디오, 유성기 음반, 대중극, 신문, 잡지 등 근대 시청각 문화를

23) 『國癩切開』自序 (김민정, 앞의 글, p.12에서 재인용)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중 소비 계층의 출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 같은 현상은 1920년대 일본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1910년대에 등장한 종합지 『중앙공론』, 『개조』는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10만부가 넘는 유통 종합잡지가 되었고, 1920년대에 등장한 『문예춘추』, 『창』은 100만부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1920년대에 도쿄에서 활자매체는 급속한 속도로 대중화 되었다.<sup>24)</sup> 김옥균 이야기를 흥미로운 독서물로 즐겨 다루는 잡지는 주로 『별건곤』, 『삼천리』 등이었다. 『개벽』이 정론지라면 그 자매지인 『별건곤』은 『삼천리』와 더불어 민중적 오락으로서의 읽을거리, 즉 ‘취미독물(趣味讀物)’을 다수 취급하는 대중잡지였다. 당시 취미독물로서 대중잡지의 인기는 독자투고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다. 『별건곤』의 독자구락부란에서 어느 독자의 투고내용을 보면, “『별건곤』 맛을 알아노니까 그야말로 미치고 반해서 밥은 한 끼쯤 굶고 살 수 있을지언정이 『별건곤』만은 한 달 치를 못 보면 속이 텅빈 거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sup>25)</sup>라고 고백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들도 1920년대 후반부터 영화, 스포츠, 연예, 부인란 등의 오락 지면을 증면하면서 대중잡지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sup>26)</sup> 대중잡지와 신문에서 김옥균 이야기를 소재로 즐겨 다루었다는 것은 김옥균 서사에 단지 민족 이야기(nation narrative)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중적 취미독물로 소비될 만한 오락 요소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중적 취미독물들과 경합하던 대중 미디어로 라디오, 유성기 음반, 영화, 대중극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미디어 역시 김옥균 이야기를 즐겨 다루었다. 유성기 음반 <김옥균전>(이서구 편), 나운규의 영화 <개화당이문>(1932), 극단 아랑의 연극 <김옥균>(1940) 등이 그것이다.

24) 요시미 순야 외, 연구공간 수유+너머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p.37.

25) 『讀者俱樂部』, 『별건곤』, 1934.6. p.53.

2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 p.198.

한 장에 1원 가량 하던 유성기 음반은 1930년대에 초, 중반에 이미 연평균 100만장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미디어였다.<sup>27)</sup> 이러한 인기 미디어에서도 김옥균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사랑을 찾아서>, <풍운아> 등과 더불어 <김옥균전>은 유성기 음반의 인기 장르의 하나였던 민족의 수난 서사에 속하는 것이었다. 사랑에 빠진 남매가 알고 보니 이복남매였다는 기구한 남매 이야기를 그린 최독건의 <승방비곡>이나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 이야기인 <장한몽>과 같은 애절한 애정 서사가 하나의 인기 장르였다면, 민족 수난의 서사 역시 대중들의 애호를 받았던 인기 장르의 하나였던 것이다.

청병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수구당 일파에게 여지없이 쫓긴 몸이 되니 가슴에 품었던 큰 뜻은 이제 어디다 풀어보며 점점이 간직했던 개화의 글밭은 다시 어디가 뒷풀이를 하겠는가? 장부가 세상에 나서 뜻을 세우고 이름을 날림이 그 얼마나 떳떳하리요마는...

한번 쫓긴 몸이 되는 날에는 센트헤레나로 실러가는 대영웅 나폴레옹의 피눈물이 옷깃을 적실뿐이로구나.

“김옥균을 잡아라!”

“김옥균을 잡아라!”

수구당의 피에 주린 아우성 소리! 가엾다! 고국에서 뜻을 잊은 그는 오척 단신의 둘 곳조차 없어서 기어코 이제는 동경으로 목숨을 도모해 망명의 손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부모처지는 모조리 청병에게 살육 당했던만 오히려 한 목숨을 도모키 위해서 인천서 배에 오른 김옥균의 가슴은 과연 어떠한 했겠는가!

아! 해 떨어지는 팔미도 돛대 그늘에 정 많고 한 많은 조국을 바라보고 눈물짓는 김옥균의 가슴을 아는 이가 누구였던가?<sup>28)</sup>

27) 위의 책, p.128.

28) 유성기 음반 <김옥균전>(이서구 편/극설명 박창원/음악 김준영/Columbia 44024-44025), <유성기로 들던 무성영화 모음1>, 신나라레코드, 1996.

당시 라디오, 유성기 음반과 같이 소리를 매개로 하는 청각 미디어는 식민지 근대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 인기 미디어였다. 이러한 미디어에 김옥균 이야기가 하나의 레퍼토리를 장식했다. 삼일천하, 실패한 혁명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드라마틱한 서사인데다가 일본 망명, 상하이에서의 암살이라는 비극적 결말까지 겹쳐지면서 김옥균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가 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삼일천하가 성공했다라면”이라는 역사의 가정까지 작용하여 식민지 망국민으로 전락한 조선 대중에게 김옥균은 “센트헤레나로 실려가는 대영웅 나폴레옹”에 비유되는 좌절한 민족영웅의 표상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즉, 김옥균 이야기는 식민지 대중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김옥균의 좌절과 수난이 민족 수난사로 재구축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김옥균은 민족 스스로의 손에 의해 거세된 민족 영웅이었기에 김옥균 서사는 아기장수 전설과 같은 애절한 민중 서사가 될 수 있었다. 이렇듯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의 수난 서사는 대중 미디어를 통해 그 상업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유성기 음반이라는 당대의 대중적 미디어를 통해 김옥균 서사가 제작,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러한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운규의 민족영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나운규의 대표적 민족영화 <아리랑>(1926)의 엔딩 부분에서 주인공 영진이 일본 순사의 포승줄에 묶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장면에서 아리랑 주제가가 울려 퍼지는데, 당시 여주인공 영희 역을 맡았던 배우 신월선은 이에 대해 “영화가 끝나자 관객 속에서는 감동한 나머지 우는 사람, ‘아리랑’을 합창하는 사람, 심지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까지 있어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고 회고하였다.<sup>29)</sup> 이영일은 <아리랑>을 가리켜 “하나의 거대한 민족영화이며 민족저항의 ‘피의 예술’”이라고 규정하였다.<sup>30)</sup> 물론 함경북

29) 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판), 소도, 2004. p.105.

도 회령 출신인 나운규는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만주를 전진하였고, 독립 운동에 연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했던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가 만든 모든 영화를 민족주의의 관점에 얽매어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화당이문>을 만들 당시 나운규는 몇 차례의 영화 실패로 실의에 빠져있을 때였다. <개화당이문>의 원래 기획자는 유신키네마의 대표 강정원이었다. 그는 <개화당이문>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영화의 성공에 자신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명에 회복을 위해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나운규에게 감독을 맡겼다.<sup>31)</sup>

<개화당이문>의 연출을 맡은 나운규는 갑신정변에 관한 기록과 사료를 수집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면담하면서 민간에 급진 개화파가 친일파라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 위기에 처한 민족의 현실을 타개할 개혁자로서 제2, 제3의 김옥균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는 것이 영화 제작의 목적이라고 말했다.<sup>32)</sup> 즉, 그는 위인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으로서 <개화당이문>을 연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셈이다. 영화의 연출 의도가 김옥균의 재현을 통한 민족주의적 욕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영화는 나운규의 의도와 달리 김옥균보다는 정변 당시 사관생도였던 청년 이규완(李圭完)에 초점을 맞춘 사랑과 혁명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정변의 주역 김옥균은 주변 인물로 몰려나고 정변의 선봉대 역할을 한 청년 생도 이규완을 내세워 그를 개화파 기생 춘외춘(春外春)과 연인 사이로 설정하여 활극과 애정 멜로드라마를 접목시킨 대중적 드라마로 만들었다. 이러한 각색에 대해 나운규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제목을 <開化黨>이라고 하지 못하고 이본(異本)이라는 의미로 <開化黨異聞>이라고 붙였다.

<개화당이문>의 시나리오에는 현재 전하지 않는데 『삼천리』(1932.7)에

30) 위의 책, p.101.

31) 최창호·홍강성, 『한국영화사 : 나운규와 수난기 영화』, 일월서각, 2003. p.161.

32) 나운규, 「<개화당>의 영화화」, 『삼천리』, 1931.11. p.53.

실린 영화소설 형태의 축약 대본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갑신정변 당시 혁명의 선봉에 서서 수구파를 처단한 청년 사관생도 이규완의 혁명과 사랑 이야기가 중심 서사로 전개되는 전형적인 대중적 영화의 플롯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 김옥균의 삼일천하 이야기가 지닌 애절한 민족 수난의 서사가 결합되면서 민족영화의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었다. 실제로 나운규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철저하게 민족영화 만들기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郵政局 앞 개천에 숨어 있다가 제일 먼저 칼을 뽑 것이 일본인 塚戶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규완(圭完)으로 고쳤고 그 날에 쓴 칼이 박영효가 가져온 日本刀였으나 김옥균이가 준비한 조선칼로 고쳤고 (…중략…) 일본 劍法 그대로 하는 것이 보이면 일본 舊劇 승내를 낸다고 관객이 그대로 보아 줄 리가 없다. (…중략…) 사실과 좀 틀리더라도 순 조선식 검법을 써보려고 각 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우리들에게 검법을 가르쳐줄만한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중략…) 또 한 가지는 규완이가 廣州에서 馬를 타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물론 朝鮮馬라야 되겠기에 여러 곳으로 구하여 보았더니…… 말이려면 서부극에 나오는 白銀같은 명마 등에 눈이 익은 관객에게 탈 사람보담도 더 적은 말이 거북처럼 엉기엉기 기어가는 것을 보면 腰絶大笑를 면할 수 없다.<sup>33)</sup> (밑줄, 인용자)

나운규는 고증한 사실과 다른 것을 감수하고라도 굳이 주인공이 ‘조선마(朝鮮馬)’를 타고 나타나 ‘조선칼’을 들고 ‘조선 검법’으로 수구파와 싸우도록 설정했다. 이처럼 나운규가 자신의 영화에 ‘조선적인 것’인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까닭이 무엇일까. 개화당이 친일파라는 세간의 오해를 풀고 그들을 민족의 위인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욕망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 조선칼, 조선마, 조선 검법이라는

33) 나운규, 『〈개화당〉의 제작자로서』, 『삼천리』, 1932.7. pp.44-45.

시각적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이 지닌 대중성의 중요성을 ‘민족영화’의 거장 나운규가 이미 감각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에게 있어 김옥균의 민족 수난 서사는 민족주의적 욕망과 대중적 성취를 공존시킬 수 있는 양날의 서사였던 것이다. 그 점에서 그것은 <아리랑>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다.<sup>34)</sup>

갑신정변 50주년, 김옥균 암살 40주년이 되던 1934년에는 신문 미디어를 중심으로 김옥균 추모 분위기가 고양되었는데, 활자미디어 가운데 민족지를 표방하던 『동아일보』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김기진의 장편소설 <청년 김옥균>(1934)이었다. <청년 김옥균>은 1934년 5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심야의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김기진은 <청년 김옥균>을 쓰는 데 김옥균의 회고록 『갑신일록』에 크게 의존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청년 김옥균>이 “7년 동안 김옥살이를 하고서 만기 출옥하는 형님의 의복과 이부자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벼락같이 20여 일 만에 써가지고서 동아일보사에 맡겼던 원고”<sup>35)</sup>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 책의 집필 동기가 경제적인 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진술을 근거로 볼 때, 그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김옥균에 대해 큰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대중 미디어를 중심으로 김옥균 추모 분위기가 일던 때에 돈벌이가 될 만한 소설의 소재로 김옥균 이야기를 착안하고 집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하 사장은 ‘원고를 미리 사달라는 것이라면 소설 원고를 가지고 와서 보여 줘야지, 보고나서 사고 싶어야 돈을 내는 것이지……원고도 안 보이어서

34) 그러나 <개화당이문>의 흥행성적은 부진했다. 그 이유는 개화파가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전복시킨 장면이 불온하다고 검열 당국에서 삭제하는 바람에 극 후반부가 지지부진해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나운규, 『<부활한 신일선>觀, 극계와 영화계의 이 일저 일까지』, 『삼천리』, 1933.9. p.109.)

35)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2)』, 문학과지성사, 1988. p.259.

덮어놓고 돈만 내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하므로 (중략) 집으로 돌아와서 김옥균의 사자(嗣子) 영진(英鎭)형한테 가서 『갑신일록(甲申日錄)』과 명치(明治) 때의 일본 『시사신문(時事新聞)』 한보따리를 갖다 놓고 재료를 부랴부랴 정리해 가지고 문을 닫아걸고서 20여 일 동안 꼬박 옆드려서 원고를 썼다.<sup>36)</sup>

김기진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宋鎭禹)를 찾아가 김옥균에 관한 소설을 쓸 테니 원고료를 선불로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옥균 이야기의 대중성에 김기진이 꽤 자신이 넘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신문연재소설은 신문 미디어의 총아가 되어 있었다. 1934년경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4대 일간지에 연재되는 소설만 15~16편에 이를 정도로 이른바 ‘신문소설의 올림픽 시대’였다. 1935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조선일보로 말하면 90%가 소설 애독자”라고 말할 만큼 신문 독자의 절대 다수가 연재소설의 애독자였다.<sup>37)</sup> 김기진이 신문사 사장에게 원고료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자신이 신문연재소설과 신문 미디어와의 관계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신문연재소설에 대해 “작가는 독자들이 날마다 보면서 재미를 붙이도록 인물의 등장, 사건의 운반, 전(前) 사실과 후(後) 사실의 조직 등을 안배하고 나서는 묘사의 옷만 입혀버리려고 한다. (……) 대부분의 작가가 이런 구상에만 열중하는 고로 거의 전부의 신문소설이 동일형이 된다.”<sup>38)</sup> 라고 날카롭게 분석하였을 만큼 신문연재소설의 상업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즉, 1930년대 신문소설은 신문 미디어의 자본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상업적 문학양식으로 표준화, 규격화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김옥균 이

36) 위의 책, p.260.

37) 천정환, 앞의 책, p.330.

38) 김필봉, 『신문장편소설시감』, 『삼천리』, 1934.5. p.223.

야기의 신문연재소설화 역시 이러한 상업적 욕망과 표면적 민족주의 욕망의 접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KAPF) 출신 비평가답게 김기진은 <청년 김옥균>에서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 혁명 주도층과 민중계층의 괴리에 있다는 예리한 지적을 하였다. 이 점이 김기진의 김옥균 재현방식의 독창성일 것이다. <청년 김옥균>은 갑신정변 이전의 정세, 정변 모의에서 우정국 사건, 삼일천하, 실패 후 일본 망명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소설 후반부에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인천으로 탈출하여 일본 기선 천세환(千歲丸)에 승선한 후 꿈에서 스승 유대치를 만나는 장면이 있다.

“선생님 말씀이 이같이 비통한 감회를 자아냅니다. 독립, 개혁, 일신한 민중과 국가의 건설……이것이 우리들의 사업이요, 유일한 목적이요, 또 의무지요……. 그렇건만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다시 얼굴을 들고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실패한 사업인 고로 더욱 힘써 해야 하지 않소? 왜 실패했는지 아시오?”

“우리들이 고독했던 까닭이지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희망, 개인의 노력과 열성만 믿고 있었습니다. 천 명이나 만 명이나 십만 명은 가만히 있고 열 사람 스무 사람이 일을 하는 줄 알고 거대한 일을 시작했던 까닭이 아니니까…….”

“옳소! 과연 그러했소…….”<sup>39)</sup>

천세환 창고에서 꿈 속에서 김옥균은 유대치를 만나 정변 실패의 원인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근본 원인이 불철저한 준비로 인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임을 인식하고 반성하게 된다. 민중에 대한 강조는 김옥균 서사에 대한 김기진 특유의 전유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록 그는

39) 김기진, 『청년 김옥균』, 문학사상사, 1993. p.289.



신문 미디어의 상업 논리에 포획되어 김옥균에 관한 연재소설을 썼지만 카프 시절의 민중적 역사 의식이 아직은 선명하게 남아있음을 알게 해준다.

김옥균 이야기는 1930년대를 넘어서 1940년까지 대중적 인기가 지속되었다. 1940년에 극단 아랑과 청춘좌가 동시에 김옥균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경합했던 사실은 그러한 점을 방증해준다. 극단 아랑은 임선규, 송영 공동창작으로 <김옥균>을 금천대좌에서, 그리고 청춘좌는 김건 작 <김옥균전>을 동양극장에서 1940년 4월 30일에 동시 개막하였다.<sup>40)</sup> 이러한 사태는 두 극단 경영자의 경쟁심, 당시에 부상하던 역사극 열풍으로 인한 것이었다. 당시 두 극단의 역사극은 고협의 <춘향전>, 조선무대의 <김삿갓> 등과 더불어 역사극 시대를 출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0년 상반기에 공연된 역사극들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은 연극은 극단 아랑의 <김옥균>이었다.<sup>41)</sup> 그러나 대중극 극단에 의한 김옥균의 극적 재현은 흥미 본위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옥균의 개인적 苦悶相을 그리는데 다만 동경 등지의 花柳界에 가서 妓生과 戀愛를 하는 것으로 사, 오십 분간을 끈다는 것은 좀 냉정히 생각할 문제”라는 당시 공연평을 참조할 때<sup>42)</sup>, 당시 대중극에서 김옥균 이야기가 흥미 위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IV. 군국주의의 전유와 내적 균열 : 조용만과 박영호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이 대륙 침략에 돌입하고 동아시아에 일본 중심의 대동아공영권 질서를 확립하고자 획책하면서 김옥균 이야기

40) 민병욱, 『한국연극공연사연표』, 국학자료원, 1997. p.27.

41) 김영수, 『역사물의 대두』, 『조광』, 1940.8. pp.106-111.

42) 김영수, 『연극시평』, 『문장』, 1940.7.

는 다시 소환되었다. 이 시점에서 김옥균의 전유는 민족주의적 욕망이나 영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소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주장한 삼화주의(三和主義)는 대동아공영권 건설과 반(反)서양주의라는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잡지 『조광』은 1941년 11월호에 ‘김옥균 특집’ 지면을 할애 하여 김기진의 「대아세이주의와 김옥균 선생」, 菊池謙讓의 「갑신정변과 김옥균」, 岩田和成(김진구)의 「고균선생의 일생」 등 김옥균 추앙의 글을 실었다. 특히 김기진은 1937년 중일전쟁에서 시작된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현재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갑신정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갑신정변→동학란→청일전쟁→러일전쟁→중일전쟁→동아신질서’라는 일련의 근대 일본의 전쟁을 중심으로 한 근대성 서사의 구성에 갑신정변을 집어넣어 김옥균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성 서사의 구성방식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근대성의 족보와 거의 합치되는 것으로서 일본 근대성의 족보에 갑신정변과 김옥균을 위치시키려는 식민지 지식인의 제국으로의 편입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의 東洋主義 — 지금 말로 번역하면 동아신질서=대동아공영권의 건설 =즉, 대아세이주의는 一名을 ‘三和主義’라고 일컫는다. 삼화주의라 함은 무슨 뜻인가? (...중략...) 교육과 생활을 신장하고 동양 삼국이 서로 싸우지 말고 상호제후 하여 구미열강의 침입을 방어함에 있어서 비로소 아세이는 융흥할 것이라는 정신인 것 같다.<sup>43)</sup>

김옥균의 삼화주의 사상이 대동아담론으로서 건강부회되고 김옥균과 갑신정변이 일본 근대 구성의 국민서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조용만의 소설 <배 안에서(船の中)>(1942)와 박영호

43) 김기진, 「대아세이주의와 김옥균 선생」, 『조광』, 1941.11. p.66.

의 희곡 <김옥균의 죽음>(1944)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김옥균을 소환, 재현하고 있다.

조용만의 일본어 단편소설 <배 안에서>는 갑신정변 실패 후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천세환(千歲丸)에 피신한 김옥균 일행을 뒤쫓아 온 청, 조선 추격대가 김옥균 일행의 하선을 요구하면서 벌어지는 긴박한 순간을 소상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천세환의 선장 쓰지가쓰지로(辻勝十郎)의 남성다움이다. 필렌도르프를 대표로 하는 청, 조선 추격대가 집요하게 김옥균 일파의 하선을 요구하자 일본 공사 다케우치는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들어 김옥균 일행이 스스로 하선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궁지에 몰린 김옥균 일행은 배는 일본 영토이고, 배에서 결정권은 선장에게 있다면서 선장을 찾아가 선처를 요구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선장은 판단성 있게 김옥균 일행의 하선 거부 결정을 내린다.

선장은 커다란 얼굴을 새빨강게 물들이며 강경하게 도리질을 쳤다. 테이블을 팡하고 내리치지만 앉았을 뿐이지 주먹을 꼭 움켜쥐고 있다.

“저는 찌도세마루의 선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감들의 말씀이라는 게, 저더러 대감들을 이 배에서 끌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좋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본남아의 명예를 걸고 제가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중략)

김옥균과 박영효는 감개무량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가와가미 통역관에게 눈짓을 해서 세 사람이 일어섰다.

“선생님의 덕택으로 저희 개혁당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이 머지않아 구원 받겠지요. 선장님은 조선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박영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선장의 손을 힘껏 쥐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자아, 몸을 소중히 하시고 동경으로 가서서 분발해주시시오. 조선은 일본

과 손을 꼭 맞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sup>44)</sup> (밑줄, 인용자)

선장의 용단에 의해 김옥균 일행은 사지(死地)에 몰려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조선의 혁명가 김옥균이 일개 일본 기선 선장에게 생사여탈권을 맡긴 채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쾌남(快男)’ 쓰지가쓰지로 선장의 ‘일본남아’다운 용단에 의해 김옥균 일행이 목숨을 건지고,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때 일본 선장의 남성성은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제국 남성의 표상으로서 강조되는 것이다. 김옥균의 목숨을 구한 쓰지가쓰지로 선장 이야기는 내선일체의 선구적 미담(美談)으로써 대동아공영권 이념에 의해 전유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중시하는 일본남아의 탄생 이면에는 신뢰할 수 없는 일본인이라는 이중구조가 양립한다. 김옥균 일행과 함께 정변을 도모하다가 태도를 돌변하여 천세환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다케조에 일본 공사의 배신과 비겁함은 쓰지가쓰지로 선장의 남아(男兒)다움을 보다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쓰지가쓰지로 선장의 남자다움을 과장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인물인 다케조에의 배신 이미지가 역시 강조된다는 데 역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쓰지가쓰지로의 내선일체 미담을 줄거리로 하는 이 소설이 역으로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 일본(다케조에)의 배신에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는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라는 지배담론의 내파(內波) 기능도 내포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갑신정변 60주년을 기념하여 창작된 박영호의 희곡 <김옥균의 사>(1944) 역시 김옥균이라는 역사인물의 기념을 군국주의의 요구에 맞게 전용한 작품에 해당된다. 갑신정변의 거사부터 삼일천하, 탈출, 일본에서의

44) 조용만, <배 안에서(船の中)>, 『친일문학작품선집(2)』(김병걸·김규동 편), 실천문학사, 1986. pp.93-94.

망명생활, 상하이 암살에 이르기까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 개혁운동의 발발과 좌절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5막의 구성 속에 응축시켰다. 등장인물도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광범, 유혁로, 정난고 등 개화파 인물들을 비롯해 홍종우, 지운영 등 자객들, 쓰지가쓰지로 선장, 다케조에 공사, 도야마 미츠루, 와다 등 수십 여 명에 달하는 대작이다. 식민지시대에 창작된 거의 모든 김옥균 재현물들이 총집결되었다고 할 만큼 이 희곡은 식민지시대 김옥균의 재현물로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희곡의 개막 장면은 김기진의 <청년 김옥균>의 한 대목과 매우 흡사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박영호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김기진으로부터 사료를 제공받았고, 조용만의 <배 안에서>와 일본 측의 문헌(中村吉藏의 <頭山滿>, 信夫淳平의 <韓半島>, 松本正純의 <金玉均詳傳>)을 참고했다고 한다.<sup>45)</sup>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대작 역사극은 박영호의 꾸준한 역사극 쓰기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는 <김옥균의 사> 이전에 <신라의 달>, <원앙>, <목화>, <단종애사 후일담>, <홍길동전>, <임궫정전>, <이치돈> 등 이미 7편의 역사극을 썼다.<sup>46)</sup> 그는 1930년대에 지방 극단에서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을 했던 진보적 연극인이었으나 일제 말기에는 <등잔불>(1940), <산돼지>(1942), <물새>(1943), <좁은 문>(1943), <별들의 합창>(1945) 등 친일극을 집필하였다. 특히 그는 <산돼지>, <물새>, <별들의 합창>으로 국민연극경연대회에 3회 연속 참가할 정도로 친일연극에 적극 가담하였다.

<김옥균의 사>가 김옥균 서사를 대동아공영권 담론 속으로 포획하는 친일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적극적인 친일극의 가담자 박영호가 군국주의 논리로 김옥균을 전유했다는 사실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다만,

45) 박영호, <김옥균의 사>, 『해방전(1940~1945) 공연희곡집(1)』(이재명 편), 평민사, 2004. p.270.

46) 이경숙, 『박영호의 역사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2008. p.142.

이 극에는 군데군데 지배담론을 은연중 비판하고 회의를 갖게 만드는 내적 균열의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옥균 : 도대체 일본은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지?

頭山 : 그래서?

김옥균 :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달라붙으면 내팽개치고, 뒷발로 모래를 뿌리고 도망치려고 하면 뒷덜미를 잡는다. 불같이 뜨겁다고 생각하면 얼음처럼 차갑다. 차갑다고 생각하면 다시 뜨겁다. …… 사실 상대 하기가 곤란하다네.

頭山 : 하……. 악녀의 깊은 정인가?

(중략)

頭山 : 내 충언을 듣고 상해 행을 그만두게나.

김옥균 : 하지만 도야마군. 내가 살해당하고 일본과 지나 전쟁의 불씨가 되면 자네들의 수년 동안 바라던 게 달성되는 게 아닌가? 나 한 사람 희생되어 그것이 일본을 위한, 조선을 위한, 아니 동양 전체를 위한 것이 된다면, 보기 좋게 죽어주지.<sup>47)</sup> (밑줄, 인용자)

김옥균이 도야마와의 대화중에 일본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대목은 일본에 대한 불신을 은연중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청일전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김옥균의 감정 섞인 토로 또한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김옥균을 이용했다는 암시를 자아내고 있다. 김기진은 김옥균이 갑오년(1894년)에 홍종우에게 암살당함으로써 “이때 이미 日淸戰爭은 發火된 것”<sup>48)</sup>이라고 말하면서 김옥균 암살이 청일전쟁의 도화선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김기진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 시기에

47) 박영호, <김옥균의 사>, pp.334-335.

48) 김기진, 앞의 글(1941), p.65.

김옥균의 죽음이 일본의 근대성 족보에 편입됨으로써 제국일본의 공식 기억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바라는 일부 식민지 지식인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박영호도 김기진과 입장을 함께 하였다. 그는 작품의 결말에서 김옥균이 홍종우의 충에 맞아 쓰러지며 “도야마군, 부탁하네. 일본을 부탁해. 조선을 도와……. 일청전쟁이다. 일청전쟁이다…….”<sup>49)</sup>라고 외치게 표현함으로써 김옥균의 죽음이 청일전쟁의 도화선이라는 일본 근대성 서사의 담론을 명료하게 재확인하고 있다. 박영호 역시 김옥균 이야기를 통해 제국으로의 편입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박영호의 희곡 속에서 김옥균의 대사, 내가 죽어 청일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면 죽어주겠다는 말은 바로 위의 대사와 연결되어 “일본이 전쟁의 명분으로 김옥균을 이용했다. 일본은 믿기 어렵다.”는 의외의 저항적 뉘앙스를 풍겨낸다. 박영호의 희곡이 본래 의도와 달리 일부 대목에서 은연중 식민주의 담론을 내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와 같은 점 때문일 것이다.<sup>50)</sup>

## V. 결론을 대신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식민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김옥균을 근대 개혁운동의 혁명가로 기억하고, 그를 추앙하였다. ‘세계적 위인’, ‘조선 근대의

49) 박영호, <김옥균의 사>, p.355.

50)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서 박영호의 <김옥균의 사>에 나타난 내적 균열 양상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양근애, 『일제 말기 역사극에 나타난 ‘친일’의 이중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2008.

윤민주, 『<김옥균의 사>에 나타나는 박영호의 전략과 그 의미』, 『어문논총』 제51호, 2009.

최대 산물, ‘동양평화의 선각자’, ‘동양정국의 제1인자’, ‘일세의 풍운아’와 같이 김옥균을 따라다닌 수석어가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일본과 조선의 아시아주의자들, 일부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일제 말기 군국주의자들, 『개벽』, 『별건곤』, 『삼천리』, 『동아일보』 등과 같은 잡지, 신문 미디어, 그리고 유성기 음반, 영화, 대중극 등에서 각기 기억 욕망과 재현방식은 달랐지만 김옥균은 위인으로 추앙되었다.

그러나 동시대에 그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나운규의 회고를 잠시 들어보자.

어렸을 때에 외척 중에 강동(西伯利亞) 다녀온 사람이 운동모(烏打帽)를 쓰고 돌아왔다. 인사차로 집에 왔을 때 할머니가 “일진회군(一進會軍)이 됐구나.” 하시었다. 그리고 일진회군을 개화군(開化軍)이라고도 말하셨다.

그때에 어린 나는 일진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 깎고 운동모 쓰고 문명개화를 이 나라에 제일 먼저 펴놓은 사람은 일진회군이요, 일진회라는회는 조선을 개혁하려던 개화당인줄 믿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된 것은 할머니가 일진회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반드시 미웁게 말했고 욕하셨다.

그때 어린 내 머리에는 일진회군이라면 그 시절에 있던 보조원을 생각하게 되고 춘추기(春秋期) 청결(淸潔) 같은 때에 마을로 내려오면 노인들에게까지 일진회군도 그런 것이었거니 했다. 차차 자라나면서 내게는 큰 의문이 생겼다. 문명개화의 필요를 먼저 느끼고 잡지는 이 땅을 개혁하려던 선각자들을 할머니는 왜 미워했을까?<sup>51)</sup> (밑줄, 인용자)

어린 시절 나운규는 할머니가 개화파를 일진회(一進會)로 혼동하였고, “일진회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반드시 미웁게 말했고 욕하셨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왜 할머니가 개화의 선각자들을 그리도 미워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나운규 자신도 할머니와 같은 평범한 조선 민중의 뇌리에 ‘개

51) 나운규, 「〈개화당〉의 영화화」, 『삼천리』, 1931.11. p.51.



화당=일진회=보조원=친일파'라는 선입견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만큼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다.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킨 박영효는 1930년대에 갑신정변 동지에 관해 회고하는 글에서 김옥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김옥균군의 장점을 들라면 그가 커다란 경론과 재조(才操)를 가지고 있는 것, 언변에 능한 것, 남을 후리기를 잘하는 것이요. 반대로 단점을 들라면 겁이 있어 담력이 부족한 것, 신의 두텁지 못한 것, 그리고 먼 장래를 보는 심려장지(深慮長智)가 모자라는 것이다 하겠다.<sup>52)</sup>

박영효는 혁명 동지 김옥균의 장, 단점에 관해 평가하는 데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 그가 장점이라고 꼽은 것마저 단점처럼 느껴질 정도다. 심지어 그는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 김옥균 개인에게 있다는 뉘앙스마저 풍긴다. 그는 더 나아가 갑신년 거사를 위해 자신이 광주(廣州) 유수(留守)를 지내면서 군대를 양성하였는데, 양병 자금 마련을 위해 김옥균이 포경회사(捕鯨會社)를 차려 얻은 미국 자본 22만원을 혼자 써버리고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아서 '분개'도 하고 '낙망'도 했다는 놀라운 진술을 하였다. 박영효의 회고에서 김옥균은 파렴치한으로 몰려버린 셈이다. 물론 이러한 진술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김옥균 옹호자인 김진구는 “40년이나 지난 오늘날 와서도 사소한 원망을 그저 가지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마다 옛 동지의 혐절(혐잡군, 인색한이라는)을 찍어내는 것은 누가 보든지 점잖지 못하고 국량이 적고 흥금이 짝 들어붙은 것을 말하게 될 것”<sup>53)</sup>이라며 원색적

52) 박영효, 『갑신 당시 개혁운동과 동지, 김옥균·홍영식·서광범 기타 제씨』, 『삼천리』, 1934.5. p.33.

53) 김진구, 『김옥균과 박영효』, 『삼천리』, 1931.5. p.41.

표현으로 박영효를 비난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결국 역사 인물을 문화텍스트에 담아 두고 표현한다는 것, 다시 말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억 욕망과 재현 방식은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문화텍스트에서 역사 인물의 재현은 한마디로 기억 담론 투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문화텍스트들에는 역사 인물에 대한 서술 주체의 각기 다른 기억 욕망이 존재하며, 그 문화텍스트를 담는 미디어/정치/자본의 기억 욕망, 당대 정치권력의 기억 욕망, 그리고 대중들의 기억 욕망 등이 서로 욕망의 경합(contest)을 벌여서 특정한 기억이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시대 문화텍스트에 나타난 김옥균에 대한 기억 욕망과 재현방식들을 아시아주의의 전유, 민족주의 및 대중 미디어의 전유, 군국주의의 전유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규명해보았다.

첫째, 아시아주의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 이는 일본의 현양사, 흑룡회 계열의 아시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아시아주의자에 의한 김옥균의 추앙 및 재현 양상을 의미한다. 『김옥균 전기』를 쓴 민태원, 김옥균에 관한 야담과 희곡 <대무대의 붕괴>를 쓴 김진구가 그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이들의 재현 행위에는 김옥균에 대한 추앙, 영웅화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균회’라는 김옥균 추앙단체를 만든 것이 그 단적인 증거다. 이들의 김옥균 재현 욕망에는 김옥균에 대한 개인적 숭배가 깊이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숭배, 추앙 행위는 민족주의적 욕망으로 비쳐질 수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국 일본으로의 편입 욕망을 김옥균이라는 매개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 혹은 대중 미디어에 의한 김옥균의 전유. 1930년대 신문, 잡지, 유성기 음반, 영화, 대중극 등 대중 미디어에서 김옥균은 빈번하게

재현되었다. 여기에는 혁명과 좌절, 망명과 암살이라는 김옥균 서사가 본질적으로 극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데다가 실패한 개혁과 혁명이 망국을 불러왔다는 안타까움과 설움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민족 서사로서 기능할 여지가 충분했다.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기진의 소설 <청년 김옥균>, 나운규의 영화 <개화당이문>, 유성기 음반 <김옥균전>, 극단 아랑의 연극 <김옥균>, 청춘좌의 연극 <김옥균전> 등이 그러한 것이다. 1930년대의 김옥균 서사는 단순한 이념지향의 재현 욕망에서 벗어나 대중적 소비를 위한 재현 욕망으로 전화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시기 김옥균 서사의 유통, 소비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재현 욕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미디어 자본의 상업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 변별성이 있다.

셋째, 군국주의의 전유. 일제 말기가 되면 김옥균은 군국주의에 의해 재소환 된다. 그가 주창한 삼화주의는 대동아공영권 담론과 반서양주의라는 군국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국주의에 의한 김옥균의 재전유에 의해 김옥균은 대동아공영권 이념과 내선일체의 선구적 사상가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재전유에는 역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김옥균을 대동아공영권 담론에 포획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본의 배신과 불신에 의한 혁명의 좌절이라는 내적 균열이 강조되게 된다. 조용만의 소설 <배 안에서>와 박영호의 희곡 <김옥균의 사>에는 모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들의 김옥균 재현 욕망의 근저에 제국 일본에의 통합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식민지 지식인이 갖는 제국적 주체로의 욕망은 내적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내적 분열에 의해 이들의 작품에는 식민주의에 대한 내파가 드러난다.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김옥균에 관한 기억과 재현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동시대 다른 역사 인물들에 대한 기억과 재현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며 김

옥균에 대한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옥균, 『甲申日錄』(조일문 역주), 건국대출판부, 1977.  
 이인직, <은세계>, 『한국신소설선집(2)』(권영민 외 편), 서울대출판부, 2003.  
 정교, 『대한계년사』(조광 편, 이철성 역주), 소명출판, 2004.  
 민태원, 『김옥균전기』, 을유문고, 1969.  
 김기진, 『청년 김옥균』, 문학사상사, 1993.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2)』, 문학과지성사, 1988.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2)』, 실천문학사, 1986.  
 서연호 편, 『한국의 현대희곡(1)』, 열음사, 1989.  
 이재명 편, 『해방전(1940~1945) 공연희곡집(1)』, 평민사, 2004.

### 2. 단행본

-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프로네시스, 2006.  
 대중서사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2) : 역사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민병욱, 『한국연극공연사연표』, 국학자료원, 1997.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판), 소도, 2004.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최창호·홍강성, 『한국영화사 : 나운규와 수난기 영화』, 일월서각, 2003.  
 신기욱, 이진준 역,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출판부, 2003.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백지운 역,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  
 스가이 유키오, 서연호·박영산 역, 『근대일본연극논쟁사』, 연극과 인간, 2003.  
 요시미 순야 외, 연구공간 수유+너머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다笹吉雄, 『日本現代演劇史(大正,昭和初期篇)』, 白水社, 1986.

### 3. 논문

- 고은지, 「1930년대 오락물로서의 역사의 소비」,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2) : 역사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pp.120-148.
- 김미도, 「‘갑신정변’ 소재 희곡 연구」, 『한국연극학』 제8호, 1996. pp.43-73.
- 김민정, 「김진구 야담의 형성배경과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2009.12. pp.1-74.
- 김수남, 「나운규의 민족영화 재고」, 『한국영화감독론1』, 지식산업사, 2002. pp.112-138.
- 김은하, 「박영호론」,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3. pp.1-95.
-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옥균 추앙과 위인교육」, 『역사교육』 74집, 2000. pp.31-67.
-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진구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 제13호, 2003. pp.79-102.
- 박제홍·김순전, 「일제 말 문학작품에 서사된 김옥균상」, 『일본어교육』 제40집, 2009. pp.175-189.
- 송경빈, 「팔봉 김기진의 1930년대 소설 연구」, 『충남시문학』 2호, 1989. pp.123-141.
- 양근애, 「일제 말기 역사극에 나타난 ‘친일’의 이중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2008. pp.509-540.
- 윤민주, 「<김옥균의 사>에 나타나는 박영호의 전략과 그 의미」, 『어문논총』 제51호, 2009. pp.521-569.
- 이경숙, 「박영호의 역사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2008. pp.127-162.
- 이희환, 「동아시아에 떠도는 김옥균 서사」, 『한국문화』 제44집, 2008. pp.75-98.
- 조재곤, 「김옥균 - 혁명가인가 친일파인가」,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pp.224-232.
- 한철호, 「개화, 일제강점기 김옥균에 대한 역사적 평가」, 『호서사학』 제38집, 2004. pp.33-60.
- Wilson, Sandra, "The Past in the Present", *Being Modern in Japa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p.170-184.

<b>Abstract</b>
-----------------

##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Kim Ok-gyun in Colonial Korea and its Meanings

Lee, Sang-Woo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tudy the aspects of cultural representation of Kim Ok-gyun, who was a famous modernizing reformer in late Chosun dynasty, in colonial Korea era and its politics of memory, which revealed in the representations. Th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character in the cultural texts are certain to be the political contest field, which the diverse memories struggle. Therefore, The memories of the historical character in the cultural text constructs the specific memory about the character after contesting of the diverse memory desires, such as the creative writer's memory desire, the consumer's desire, the social and cultural power's desire. So, the politics of memory is very important issue for examining the meanings of historical literature, theatre, films, and so on.

In this essay,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aspects of the creative writer's appropriation about Kim Ok-gyun in their each works in colonial Korea. This essay argues that there were three aspects of appropriation about Kim Ok-gyun in colonial Korea. First, Korean Pan-Asianist's appropriation about Kim Ok-gyun. They were affected by Japanese Pan-Asianists, such as the intellectual members of *Hyunyangsa*(현양사) and *Heukryonghoi*(흑룡회), they were willing to write about Kim Ok-gyun because of deeply adoring him. So, many Korean people at that time misunderstood that the writers wanted to express the nationalist sense when the writers represented about Kim Ok-gyun.

Second, Korean nationalist intellectuals and mass media's appropriation about Kim Ok-gyun. The newspapers, such as "*Dong-a Ilbo*"(동아일보), the

magazines, as like "*Byulgungon*"(별건곤), "*Samcholli*"(삼천리), the films, the voiced phonograph records, the popular theatres competitively represented Kim Ok-gyun in 1930's, as the narrative of Kim Ok-gyun itself could be a very dramatic and national narrative. At that time, many Korean people regarded the narrative of Kim Ok-gyun as symbol of ruined people.

Third, militarist's appropriation about Kim Ok-gyun. In early 1940's, Kim Ok-gyun's narrative were recalled by Japanese militarism, because Kim Ok-gyun's political idea, which argued the peace and harmony between Korea and Japan, China, was very similar to the Great East Asianism of Japan. So, colonial militarist writers re-adored Kim Ok-gyun for using his idea to identification discourse with Japan. They wanted to make use Kim Ok-gyun's narrative for entering theirself to Japanese subject.

Key-words : Kim Ok-gyun, politics of memory, representation, appropriation, Pan-Asianism, nationalism, militarism, mass media

이상우

소속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상우 교수 연구실

이메일 : swlee82@korea.ac.kr

핸드폰 번호 : 010-3290-1978

이 논문은 2011년 5월 16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
--